

유관산업의 발전에도 노력하길...



박태남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사무국장)

얼마 전에 TV에서 히다마쓰 모리이코(平松守彦)라는 일본의 주지사가 농촌경제부흥에 관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강연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탄복했던 기억이 있다. 그는 오이타지방에서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을 주창한 당사자였는데, 그 운동은 이제 세계적인 농촌부흥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다.

그 운동의 연륜이 월간양돈 창간주년과 비슷할 것이므로 일촌일품이야기로 창간 14주년을 축하하고자 한다.

10여년 전, 오이타현의 주지사는 가난일색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도 돈벌어 하와이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행정부가 새로운 수요창출의 책임을 질테니 여러분은 일본에서 제일가는 제품을 만들어라... 일촌일품운동이 개시된 것이다.

그 대원칙은

1. 자주, 자립, 창조정신으로
2. 업무를 추진할 중심인물을

키우고

3. 마을마다 한가지 특산물을 전문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주지사는 농업이 1.5차 산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여 대도시로 직접 쇠고기, 돼지고기 판매운동을 벌였다. 소비 없는 생산이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오이타현의 생산물은 어떤 부분은 세계 제일의 제품이 되었다고 한다. 그분은 요즘 일촌일품운동의 심화과정으로 다시 일촌일풍(一村一風)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풍」이라는 것은 기풍(氣風), 가풍(家風)하듯 정신적인 문화풍토 조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호구지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운동을 이젠 자량과 긍지로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시키려는 운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껍이나 감동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모습을 우리 양돈업에 비유하면 어떨까? ①양돈기자재 ②종돈 ③사료 ④관리 ⑤유통 ⑥요리개발 ⑦홍보 등 유관산업끼리의 아름다운 조화! 이것이 일촌일품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우리도 그 각 분야는 있지만 서로 간 협조하는 조화는 빈약하여 그 분야의 중심인물 만들기에 너무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있지만 조직이란 움직임이 없으면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알면서 행하지 않음은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라는 말도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월간양돈」지가 업계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유관산업의 조화로 온 발전과 「알음을 행하게」하는데 더욱 진력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입개방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는가?